

## 'LPGA 첫 승 조준' 윤이나 "멘털 코치와 훈련, 내게 큰 도움"(종합)

등록 2026.05.15 10:11:26



[신시내티=AP/뉴스시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크로거 퀸 시티 챔피언십 첫날 공동 1위에 오른 윤이나. 2026.05.14.

[서울=뉴스시스] 하근수 기자 = 윤이나와 최운정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크로거 퀸 시티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 첫날 나란히 리더보드 최상단을 꿰찼다.

윤이나는 15일(한국 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메커티와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5개, 보기 3개를 쳤다.

4언더파 66타의 윤이나는 최운정, 다케다 리오(일본)와 함께 공동 1위에 올랐다.

지난 2024년 윤이나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우승 1회, 준우승 4회를 달성했고, 대상 포인트(535점), 평균 타수(70.0526타), 상금(12억1141만5715원) 등 3관왕을 이뤘다.

윤이나는 2024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를 제패한 뒤 퀄리파잉(Q) 시리즈를 통과해 2025시즌 LPGA 투어에 입성했다.

하지만 지난해 윤이나는 26개 대회에 출전해 8차례 컷 탈락을 당했고, 토토 재팬 클래식에서 유일하게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그런 윤이나가 올 시즌 포드 챔피언십에서 공동 6위, JM 이글 LA 챔피언십에서 4위에 오르더니, 메이저 대회인 세브론 챔피언

십에서 공동 4위를 기록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윤이나는 최근 맹타를 이어가 이번 대회에서 LPGA 투어 첫 승에 도전한다.



[신시내티=AP/뉴스시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크로거 퀸 시티 챔피언십 첫날 공동 1위에 오른 윤이나. 2026.05.14. 10번 홀(파4) 버디와 함께 1라운드를 시작한 윤이나는 16번 홀(파4)과 18번 홀(파3)에서 버디, 17번 홀(파4)에서 보기를 적으며 오르락내리락했다.

후반 9개 홀도 마찬가지로였다. 1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했지만, 5번 홀과 6번 홀(이상 파4)에서 연속 보기를 범하며 잠깐 흔들렸다.

윤이나는 7번 홀(파4)에서 이글을 낚았고, 8번 홀(파3)에서 버디를 추가하고 첫날을 마쳤다.

LPGA 투어 미디어에 따르면 윤이나는 "내 생각에 드라이버샷이 정말 어려운 코스다. 페어웨이드 좁고 바람도 많이 분다"며 "좋은 퍼팅 기회를 잘 살린 것 같다. 덕분에 파와 버디를 많이 잡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퍼팅이 강점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다. 나는 장타 유형이지만, 퍼팅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오늘 결실을 본 거 같다"고 답했다.

티샷, 칩샷, 퍼팅 등을 더 연습해야 한다고 전한 윤이나는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 꽤 잘했다고 생각한다. 멘털 코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시내티=AP/뉴스시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크로거 퀸 시티 챔피언십 첫날 공동 1위에 오른 최운정. 2026.05.14. 최운정은 지난 2009년 LPGA 투어에 발을 내디딘 뒤 오랜 기간 최고 무대에서 경쟁하고 있다.

2015년 마라톤 클래식 우승 이후 정상을 밟지 못한 최운정은 11년 만의 투어 2승을 목표로 대회를 치른다.

최운정 또한 "정말 어려운 코스다. 페어웨이가 좁고 그린도 울퉁불퉁하다. 러프가 굉장히 두꺼워 페어웨이에 안착하는 게 관건"이라고 짚었다.

올 시즌 출전한 6개 대회 중 5차례 컷 통과를 이룬 최운정은 "가족들이 많은 도움을 줬다. 지난 몇 년간 많은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다시 뛠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 선수 중에선 고진영이 3언더파 67타로 공동 4위, 신지은, 김아림, 이정은이 1언더파 69타로 공동 9위에 올라 톱10에 진입했다.

여자 골프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르다(미국)와 2위 지노 티띠꾼(태국)은 나란히 공동 9위를 달렸다.

디펜딩 챔피언 찰리 헐(잉글랜드)은 2언더파 68타를 쳐 공동 7위로 타이틀 방어전을 시작했다.

©공감언론 뉴스시스 hatriker22@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